

중국 금융자산관리공사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

1. 개요

- ☐ 중국의 4대 금융자산관리공사는 지난 11월 중순 북경에서 불량자산처리와 관련, 국제세미나를 개최함.
 - 동 회의에는 20여 개 국가의 금융 및 법률 전문가 및 국제조직 관계자들이 참석, 불량 금융자산 처리 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는데, 특히 중국의 금융자산관리공사의 운영 현황에 대한 관심이 높았음.
 - 지난 1999년 중국의 4대 국유상업은행은 불량자산 처리를 위해 信達(중국건설은행), 華融(공상은행), 長城(농업은행), 東方(중국은행) 등 금융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한 바 있음.
 - o 중국은 4대 금융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날로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는 불량자산 문제를 처리할 계획이었으나, 금년 9월말까지도 처리된 불량자산은 전체의 10%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짐.

2. 금융자산관리공사 운영 현황

- ☐ 4대 금융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처리 현황은 다음과 같음.
 - 중국인민은행 발표에 따르면, 금년 9월말 현재 4대 국유상업은행의 부실채권은 은행 전체 대출의 26.6%에 달함.
 - 4대 금융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한 부실채권 금액은 약 1조 4,000억 元에 달하며,

동시에 580개 국유기업에 대해 채권의 주식 전환을 실시, 약 4,000억 元의 부실채권을 처리하였음.

- 同 금융자산관리공사는 4대 국유상업은행의 부실채권 처리 외에도 국책은행인 국가개발은행의 일부 불량자산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.

□ 금번 세미나에서는 중국의 불량자산 처리는 많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지만,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되었음.

- 첫째, 국유상업은행 개혁의 출발점이 되었는데, 실제로 대규모 불량자산 처리 이후 국유상업은행의 부채비율이 현저히 개선되었음.
- 통계에 따르면, 4대 국유상업은행의 불량대출 비율이 평균 10%포인트 감소하였으며, 특히 2000년 4/4분기 이후 불량대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기 시작, 금년 상반기에는 불량대출이 2.1% 감소하였음.
- 최근 중국인민은행은 금융감독 책임제를 실시하는 등 금융감독 기능을 강화하였으며, 상업은행 자체적으로도 엄격한 내부심사제도를 실시, 불량대출률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음.
- 둘째, 국유기업 경영 개선 효과를 가져 왔으며, 현대기업제도 도입을 촉진시키고 있다는 평가임.
- 채무의 주식 전환을 실시한 기업의 약 80%가 흑자를 실현하였으며, 더욱이 채무의 주식 전환은 기업제도 개혁을 촉진시켰는데, 주주 구조의 다원화 실현, 출자자의 명확화, 대주주에 대한 견제 강화 등 현대기업의 특성을 보유하게 되었음.
- 채무의 주식전환 이전에는 20%미만의 기업만이 현대기업제도 개혁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짐.
- 셋째, 설립이후 2년이 지난 중국 4대 금융자산관리공사의 불량자산 처리 속도 및 회수율이 국제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는 평가임.
- 금년 9월말 현재 채무의 주식전환 이외에 4대 금융자산관리공사가 각종 형식을 통해 처리한 금액은 930억 8,000만 원에 달하는데, 이는 전체 매입 불량자산의 6.7%에 해당함.
- 또한 그중 377억 7,000만 元의 자산을 회수하였는데, 회수율은 40.6%에 달하

며, 현금으로 회수한 금액은 232억 8,000만 元에 달해, 현금 회수율은 25%인 바, 이는 미국의 RTC(Resolution Trust Corporation), 한국의 KAMCO와 비교해서 손색이 없다는 자체 평가임.

- 특히 2000년 한해 동안 4대 금융자산관리공사가 불량자산 처리과정에서 지불한 각종 채무비용은 전체 불량자산 총액의 0.1%에 불과한 14억 2,000만 元인 바, 이는 미국 RTC의 1%보다 훨씬 낮은 수준임.

- 넷째, 4대 금융자산관리공사는 합병, 자산 재조정, 파산 등을 통해 시장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, 전체 중국경제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고 있음.

- 불량자산 처리는 ▲建築資材, 방직 등 산업의 기업 자산 재조정을 통해 산업고도화 촉진, ▲민영 및 다국적 기업에 불량자산을 양도, 기업의 소유제 구조 개선, ▲합병, 매입 등을 통해 우수 기업에 역량을 집중하는 동시에 국유기업의 경쟁력 강화, ▲채무상환, 파산 선고 등을 통해 적자가 심각한 기업의 퇴출 추진, ▲상장기업의 채무조정을 통해 주식시장 활성화 유도 및 투자자들의 이익 보호 등의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임.

- 그 밖에도 불량자산 처리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에도 기여하는 한편, 금융자산관리공사는 2,000여건의 소송 승리를 통해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에도 기여하였음.

□ 4대 금융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중국내 불량자산 처리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하였음.

- 중국내 불량자산 처리과정의 특징으로는 ▲1개 금융자산관리공사가 처리할 불량자산이 각 국유상업은행에 산재해 있으며, ▲금융자산관리공사가 정부 투자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, ▲불량자산의 대규모 일괄 구매를 선호하여 위험 부담이 크며, ▲사원 1인당 처리하는 불량자산 금액은 1억 원, 관리 기업은 200호를 초과하는 등 업무가 상대적으로 과중하며, ▲공사의 법률적 지위가 불안정하다는 것 등이 지적되었음.

3. 전망 및 시사점

□ 중국 금융 당국은 금번 세미나를 통해 제시된 각국의 불량자산 처리 과정을

참고하는 동시에 외자유치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.

- 중국 금융자산관리공사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미국의 RTC, 한국의 KAMCO, 말레이시아의 DANARHARTA 등 불량자산 처리 사례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, 미국의 불량자산 처리 법규 조례 등을 중국 현실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견해가 적극 제기됨.

- 또한, 4대 금융자산관리공사는 외자유치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, WTO 가입으로 인해 중국 금융시장 개방이 본격화되면 외국자본을 활용하는 불량자산 처리 방안이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보임.

□ 한편, 금번 세미나에서도 일부 행정단위의 지나친 행정간섭이 금융자산관리공사 운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는데, 민간 상업은행이 참여하는 금융자산관리공사의 설립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.

- 그 동안 중국내 일부 지방 행정단위의 지역내 신흥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행정간섭은 불량대출 증가, 경영의 비효율성 증대 등 은행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왔음.

- o 민간 금융자산관리공사의 금융자산 재분배 및 재활용 참여는 시장시스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일부 행정단위의 간섭을 배제하는 데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임.

- 이미 민간이 참여하는 금융자산관리공사 설립은 ▲인재의 효율적 배치 및 업무의 전문화, ▲지역 및 영업 제한 축소, ▲경영 다양화 및 민활성 제고, ▲불량자산의 은행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 감소 등의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. (***)